

KISA & KISA

사진동호회 '뷰파인더로 바라본 세상'

카메라가 '부(富)'를 상징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진을 찍는 것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일종의 행사였고, 사진촬영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능 좋고, 저렴한 카메라를 통해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격세지감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리라. KISA 내에도 사진동호회 '뷰파인더로 바라본 세상'이 있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홍현표 작. 인사동에서

백은경 작. 창경궁에서

홍현표 작. 내소사에서

다기중 작. 부산해운대에서

'카메라! 욕심대로 한껏 성능 좋은 카메라를 샀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인터넷 자료는 여전히 방대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일과 후 동호회 활동도 만만치 않고...' 지난해 8월 KISA 사진동호회 '뷰파인더로 바라본 세상'은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졌다. '뷰파인더로 바라본 세상' 참으로 세련된 명칭이지만 이들은 굳이 '일단 찍어(이하 일.찍.)'로 자신들을 소개한다. 어려운 촬영기법이나 복잡한 카메라 구조는 몰라도, 일회용이든 수백 만원을 호가하는 사진기든,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出寫라는 것도, 사진에 대한 강연도, 점심시간과 높은 KISA 건물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처럼 좋은 날씨가 이어질 때에는 과감하게 '원정 출사'를 떠나는 이들의 모토는 사진을 찍는다는 그 사실을 즐기자는 것. 때문에 사진동호회 회원이라면 응당 알아야 할 상식을 모른다고 해도 죄(?)가 되진 않는다.

뷰파인더로 보는 색다른 세상

물론 사진에 대한 열정 하나만은 최고다. "눈으로 본 세상과 뷰파인더로 바라본 세상은 너무 다르게 느껴져요. 스쳐갈 수 있는 작은 것이 특별한 '무엇'이 되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남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요"라는 한 회원의 말 속에서 일.찍.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잊고 싶지 않은 기억,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 눈을 맞추는 '일.찍.' 그들은 오늘도 카메라에 '마음'을 담는다. **S**



사진동호회 '뷰파인더로 바라본 세상'의 회원들



이정은 작. 건대 앞 한 스튜디오에서